EWON

梨園

Ewha Woman s University

Alumni Associaton

Washington D.C.

3

1972

고문 (가나다 순)

박 경옥(530－0034)
박 경호(434－8815)
오 창희(268－4965)
윤 주덕(939－0793)
전 규홍(244－7837)
최 제창(765－8787)
황 재경(582－8443)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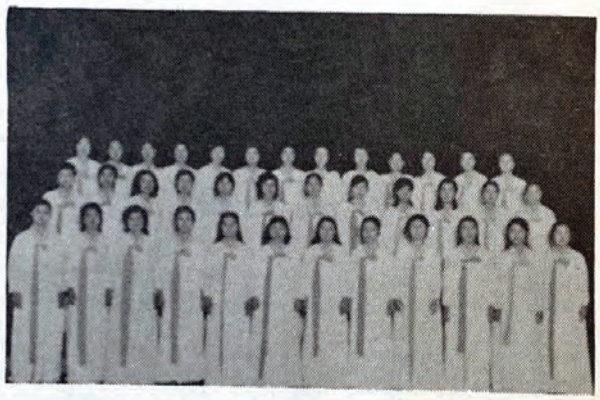
회 장.....이 동우
부회장.....김 순학
서 기.....김 정자. 이 해순
회 계.....유 연담. 한 찬실
사업부.....최 의순. 현 금봉
사교부.....정 용선. 조 인숙
문학부.....최 임선. 한 혜경
음악부.....강 서라. 최 정선

목 차

동창회 고문,임원 명단.....편 집 실.....1
화 보.....편 집 실.....3
목 차.....2
권두사.....회장 이 동우.6
소련을 다녀와서.....박 원정.....7
동창회 행사 보고.....편 집 실.....12
모교 소식란.....편 집 실.....13
장학기금 그후 소식.....권 경주.....14
서울서 온 편지..... 윤 영자.....15
서독 체류기.....김 인식.....16
(시) 님 이여.....이 순영.....18
발렌타인 무도회 후기.....이 동우.....19
이화, 연세 발렌타인 파티 회계보고.....이 동우.....20
이화 십년발전을위한 활동 보고.....권 경주.....20
"이원"찬조금.....편 집 실.....20
진.선.미.의 향기 온천지에 퍼져.....오 창희.....21
동창들 소식.....편 집 실.....29
동창 명단.....편 집 실.....32
편집 후기.....편 집 실.....42
광 고.....31 50

畵 報

와싱톤에 도착한 모고 글리 클럽 일행을 맞아.



이화 글리 클럽.

동창회 음식 바자회 광경

단장 이 규순 교수와 함께 (조인숙, 오목사, 이순영, 이규순, 홀른여사. 그리고 이 동우.

뉴욕에서의 공연 광경.

지휘자—이규순 음대 교수.

글리 클럽과 함께. 우단—조인숙 그옆—이동우
좌로 두번째—이 순영, 중앙뒤—오 창희 목사.

9. 동창회 친목회의 한 장면. (우로부터—
이 순영, 장 순복, 임 명순, 김 순학.

이원 제 3호에 부치는 말

개나리가 진지는 이미 오래이다.
덕옷과 진달래가 한창이고보니 이원의 배꽃도
그 하이얀 마음을 활짝 피웠으리라.

조그만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후 꾸준히 자라
온 한그루의 배나무 "이원".
우리들 다같이 즐고 즐기우는 생활 가운데서
이 한그루 나무를 사랑하고 길러 봤서 그 새
돗을 맞으니 우리들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겨울을 지나며 한살을 먹는사이에 이 지방의
이원가족이 많이 늘었다. 이만큼많은 선배나
후배를 맞은셈이다.
이원이 자라야할 바탕이 넓어지고 회원간의 배
개체로서의 책임이 중해진것이다. 더욱 회원간
의 협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원"을위해 후고해주신 여러분, 편집
을 애써주신 동창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원"
을 내는데 회원도 아니면서 많은 이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회장 이 동우

기 행 문

소련을 다녀와서

박 원 정

여정은 작년 6월 17일에 와싱톤을 출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박, 핀랜드 수도 "헬싱키"에서 2박하여 소련에 입국, 레닌그라드에서 6일, 남쪽 우크라이나 수도 키후에서 3박, 헐코후에서 2박,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모스코에서 3박하고 불란서 빠리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소련여행은 한국인으로서는 두번째로 입국을 허가받은셈이다. 이유는 남편이 "국제 이론급 응용역학 연합회"라는 학회의 논문발표차 가는데 동행했으므로 별 까다로움없이 비자가 나온것이다.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여행중 몇가지 느낀점만 들어서 써보기로 한다.

소련인들은 생각했던것 보다도 일에 비능률적이었다. 우리일행이 비행장에 도착하여 세시간을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패스포드 검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피곤한 여행자들을 기다리게 한것 까지는 좋으나 그날저녁 지정된 외국인 호텔에서 오후 8시 30분에 식탁에 앉아 밥 12시 30분에야 나오게 되었다면 얼마나 서비스가 느린지 짐작이 갈것이다. "서구로 향한 창문"이라는 소련의 둘째로 큰 도시 "레닌그라드"에 첫 밤을 디딘날 저녁이었다. 이곳에서 6시에 국제 학회가 열렸던 것이다. 오기전의 생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는 일에대한 철저한 조직적인 훈련이 되어 있을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다. 이유는 적어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에 충실해서나 또한 상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포심에서 그러할줄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을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식당 매니저가 손님 서비스를 빨리 빨리 할려고 하지 않는것도 그 식당이 자기것이 아니고 국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앙달하게 노력을 할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외이츄레스"가 황소걸음을 하는것도 팁이 나올것도 아니고 아무리 일을 잘해서 승급이 되었다해도 뽀죽한 수가 없는것이다.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살것인가? 국가처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길이 있을것인가? 인간의 본능, 경쟁심리, 소유욕의 본능을 자극시켜

졸란한 모티베이숀이 없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 극한된 경험에서이니 모든일에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는것이다.

남녀 동등권이 철저하다.

소련에서는 남녀를 기능적으로나 혹은 어느정도의 단체적으로 구별을 시키지 않는다. 즉 여자는 나서부터 체구적으로 가정사나 돕고 어린애를 기르는것이 직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어디까지나 남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활동한다고 보는것이다. 그러기에 국회의원 30%가 여자요 공장장 또는 기관장에도 여자가 많고 버스 운전수 심지어는 도로공사에 중력 추력 운전사도 중년여자가 하고있는것을 보고 내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공원의 정원사, 도로에서 풀깎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들이 흰마후라를 쓰고 일하고 있었다.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50세 이상이면 은퇴를 하게되고 은퇴후 퇴직금은 원 수입의 80%가 하는데도 할머니들이 나와 일하고 있는것을 보니 그것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여하간 원수입으로 봐서도 평균수입이 120루블(그당시의 환률이 1루블대 1달라 10전) 이라니 부부다 나가서 어느 일이나 해야지만 생활이 되는것같이 보였다. 우리 서구식으로 어린애는 3세까지 혹은 5세까지 어머니가 집에서 길러야 된다는 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것이다. 아침일찍부터 탁아소에 맡기고 저녁늦게 찾아가는것이 대부분의 생활인데 이렇게 자란 어린이들의 성격구성이 어떻게 되며 따라서 국민성이 어떻게 될것인지는 연구의 제목이 될만하다.

결혼도 간단하고 교제도 간단하다.

결혼식은 레닌그라드에서 또 우크라이나 수도 "카에후"에서 두번이나 보았는데 매 15분마다 연달아 연속식을 올리게 된다. 어느 예식장이고 레닌의 백호상이 단상 가운데 고정되어 놓여있고 3-4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있고 식순을 맡아보는 사람과 시의원의 한사람이 있다. 즉 시의원이 증인 두사람의 사인을 받고 소련 연방국의 이름으로 결혼을 허가하는것이다. 반지교환이나 마지막에 키스하는것등 신부채림등 이곳과 별다름이 없으나 꽃다발을 주는것으로 끝나는데 항상 다른 사상이 기다리고있어 15분만에 끝내게 된다고 한다. 가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곳에서 식을 올리고 다시 교회에가서 간단히 예식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

소련에서는 교제도 대단히 간단하다고 한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너무 년소해서 결혼을 하기때문에 이혼률이 많다고 국가에서 그런 결혼식을 막기위해서 여러가지 고려중이라고 한다. "후로이드의 학설 연구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심리학자들도 정신병원 의사들가지도 책을 구할수가 없어서 곤란을 받고 있다고 한다·이런 점으로 미루어봐서 미국에서 결혼전에심리학자나 결혼상담소를 찾아가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예가 소련에는 드믄데서 오는지는 모르겠다· 결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수있는 성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는 모르나 "하이포크리티칼 퓨리타니즘"이 지배하고있어 성에대한 서적은 도무지 없다는 얘기는 밉을만 하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가두에서 흔히 볼수있었던 라체사진 잡지등 하나 볼수없었고 게시판에 가끔 영화 선전 장면이 나와도 극히 그런점은 피해 내놓은것이 틀림없었다·

이혼후에는 무조건 어머니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되고 15세가 되면 그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아버지와 살게 된다던지 정해진다고 한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떠나기 전에 상상하기를 공산국가 인민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데서 살고 똑같은것을 먹고 사는줄만알았다."엄격히 말해서 공산주의는 각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노동을하고 그 원하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 라고 할것인데 소련은 어느 가이드든지 똑같은 대답을 하드시 능력있는자가 어떤 방법에 있어서던지 월급을 받는 "각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받으며 노동의 질과 양에따른다"라는 사회주의 계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수입이 120루블인데 자동차는 최하가 6000루블이라니 자동차를 살수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것이다. 모스코바의 "고ㅡ리기"가에는 수만루-불하는 호화스러운 미ㄱ크 코트나 세ㅡ불의 럽전문 점포가 있으니 그곳을 출입하는 계급은 누구냐 ?하는것이다.

이렇게 빈부의 차, 소득의 차, 또 말미암아 생긴 계급사회가 1917년 레닌의 혁명후 54년이 지난 오늘

남도 없어지지않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결함이 존재하니 공산주의라는 유영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영같았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미국에 비해서 퍽 낮게보였다. 미국과 같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수 있을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대국 ㅅ소련이지만 국민의 소비생활의 수준이 퍽 낮은데 놀랐다. 첫ㅈ재 거리에 자동차가 몇 보이지않고 택시를 잡으려면 ㅅ소련서 둘ㅈ재로 크다는 "레닌그라드"에서도 얼마 걸어가야 택시 스탠드가 있고 거기서 줄지어 30분너머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남자들은 여름철이래도 약 70도의 기온이라 오픈 와이셔ㅅ에 헌 양복저고리를 걸치고 있었고 넥타이를 맨 남자는 거리에서 별로 볼수 없었으나 결혼식에만은 정복으로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여자들의 화장,의상은 20대 여성들은 가발도 ㅅ썼고 서구 여성들과 조금도 다름없었으나 40대이상 할머니들 중에는 누추한 차림이 많이 보였다. 물론 우리가 본 여성은 도시 여성이기에 농촌 여성들은 어떠한지 알바가 없었다. 레닌그라드, 모스코. 키에후, 이 삼대 도시의 제일 크다는 백화점에 가봐도 물건도 많지 않지만 형편없이 저질인데는 놀랐다. 소위 테레비, 세탁기, 드라이어가 있기는하나 보기만해도 그 성능이 좋지 못함을 알수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드라이어는 있어도 ㅅ쓰지 않는지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너덜너덜 빨래가 널려있는것이 더러 보였다. 테레비도 컬러색은 시중에 보이지않고 19인치 흑백이 450루불이라니 평균 월수입이 120루불인데 어떻게 테레비를 갖일수 있을ㄱ가 도저히 수긍되지 않으나 가이드 말 에 의하면 대개 한집에 하나ㅅ식 있다고 한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모두가 아파트 생활을하고 집세는 전가족 수입의 4%이고 의료비 교육비가 무료이니 ㄷ도 물건이 없어서 돈ㅅ쓸데가 없는것같다. 그러니 몇달 저축해서 그런것을 살수 있는것같다. 옷, 속치마, 양말같은것이 어ㅈ지나 비ㅅ사고 좋은 세타는 50루불—30루불은 줘야하고 남자 양복도 100루불 줘야 살수 있는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성 이사크 사원앞에 구경들어갈때고 줄지어슨 여자들중에는 거의 반은 양말을 신지 않았다. 속치마도 조금 레스를 달고 어여ㅃ면 15루불이다. 이같은 국민소비에 국가 생산력을 많이

ㅅㅅ지않고 국방력, 중공업 발전에 서구 제국을 능가할려고 급급한 생리를 이곳 저곳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예를들면 그 유명하게 장엄한 시설을 자랑하는 "피타의 화원"에는 하루에도 수천명의 구구경 군이 국내외에서 다녀가는데 그곳 변소는 수세식으로 되어있지않고 한국 시골변소처럼 독 두개가 나란히 놓여있어 앉아 용변을 보게 되어있고 휴지라고는 신문지도 놓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 부근에 가면 먼곳에서부터 지린내가 진동하였다. 물론 긴 관을통해서 물이나와 씻어내리지만 아주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또 외국 손님들을 위해 지은 현대식 호텔에도 엘레베타 성능이 나빠서 고장이 잘 난다던지 하는것도, 또 그 건물 외관에 비해 비누, 용변기 등의 질이 좋지못함도 국민들의 편리, 수준의 향상보다도 국방력 증강, 나아가서 공산주의 세계 정복에 급급하여온 탓이 아닐까?

비 스타린 제도 이후의 ㅅㅅ련은 상상했던것보다는 훨씬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관광, 호텔, 희당(국영 여행사 호텔)에는 어디에나 밴드가 있어서 자정을 넘도록 춤을추게 되어있다. 일반 ㅅㅅ련인 에게는 숙박은 못해도 희당은 연회석으로 공개되어있어 주중, 주말없이 즐기고 있는것을 보았다. 휴계지로서 아름다운 공원이 많이있고 해수욕장이 더러 있어서 비키니를 입고 즐기는 또 재즈가 좋아 춤추는 국민들을 볼때 ㅅㅅ련인들도 서구인들과 같이 개방적인 국민인것같다. 아마 너무나도 순량해서 역대 왕들의 폭압한 착취에 견디어 나왔을런지 모르겠다. ㅅㅅ련 역사에보면 우리로서는 상상도못할 위정자들의 압박밑에 구속을 받아온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과거 생활에 비교해서 만족히 여기고 사는지도 모른다. 또하나 이들이 만족할만한 조건으로는 국외 여행이 허락되지않아 국내에 감금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을 모르니 비교의 대상이 과거밖에 없는것이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속에서 자유의 만족속에 살고있고 우물밖에 대양이 있음을 아는 인테리겐자들은 그 우물만의

자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직도 당하고 먼 시골로 전직도 당하고 있는것이다.

사방 팔방에 레닌의 초상화와 백골상이 눈에 띄었으니 마치 일본인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생명을 바쳤드시 레닌을 우상삼어 살아가는 것이었다. 내일의 소련이 어떠한길을 걸어갈지 또한 소련의 현재 걸어온길도 역사만이 그 공적을 심판할줄안다.

—(끝)—

동창회 행사

- 2월 14일— 고 김활란 박사 1주기 추도 예배를 워싱톤 한인교회에서 보았음
- 5월 9일— 어머니날 네브라스카 에비뉴에있는 워싱톤 한인 침례교회에서 여러 동창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한국음식으로 "후드 페스티벌"을 열어 성황을 이루었음.
- 11월 7일— 친목회겸 정기총회로 김 순학 동창 댁에모여 임원개선을 했음
- 2월 11일— 이대, 연세대 공동주최로 죠지타운 대학"내이슨 홀"에서 발렌타인 무도회를 갖었음.

모교 소식란

고 김 활란 선생님 대상

● 모교에서는 고 김활란 선생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었다.

●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에는 망우리 금란 동산에 성묘하다.

● 이어서 같은날 오후 7시에는 이화음대와 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모교 대강당에서 추모 음악예배를 갖다.

이대 "글리— 클럽" 도미 공연

● 뉴욕의 링컨시센터 초청으로 국제대학생 합창제에 참가한 글리 클럽은 오디션을 거쳐 15개국중의 하나로 뽑혔다. 이 규순 교수의 지도아래 42명으로 구성된 글리 클럽은 미국 주요도시와 대학에서 서양음악과 한국 민속음악을 펼쳐 보였다. 와싱톤에 20일에 도착하여 23일에 떠난 짧은 일정중엔 주미 대사관 리셉숀, 백악관 리셉숀, 그리고 4월 22일 오후 8시 30분엔 케네디 시센터에서 공연을 갖고 관중들의 대 갈채를 받았다. 5월 25일자 워싱톤 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 글리 클럽을 높이 평하였다.

From an objective stand point, the most exciting pure human sound came from the Japanese men and Korean women. This dose not really surprise me because ... Korea has always been one of the most musical culture in the world.....

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친 글리 클럽은 5월 23일 오전 9시 딱 짜여있는 공연일정을따라 뉴욕으로 떠났다.

이화는 여 선교사를 낳다.

● 이화 기독교학과 전 재옥 교수는 지난 8월 26일에 파키스탄으로 향발, 그곳에서 3개월동안 영어를 가르칠것이라한다. 이화는 84년전에 미국감리교 선교사들에의해 창설되었던것인 만큼 김 옥길 총장은 이를 보답하기 위해 다른나라 사람들을 돕는것이 당연한것이라고 결심한바 있었다.
김총장과 서은숙박사외에 이화교목과 학생처장도 협조하는 이화 선교사업부에서는 그 뜻을 따라 이번에 전 재옥 교수를 파키스탄으로 파송하게 된것이다.

이화여대가 이화대학으로

● "상호 교환 수강제도"에따라 이화여자대학교에 수강 신청을냈던 연세대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김 영희군(27)과 성락수군(22)이 22일오후 강의를 받기위해 등교 86년만에 처음으로 "금남의 배움터"에 남학생이 들어갔다. 이날 두 남자 대학원생은 도서관 이층 5호 시세미나 강의실에서 이대 대학원생 김 정희양(22)과 셋이서 강 윤호 교수의 "음운론"을 수강했다.

록펠로 재단의 특지

● 록펠로 재단에서는 이화 의대의 가족계획 교육과목을 실천하는 비용으로 만오천불을 이화로 보낸다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 옥길 총장에게

전답했다. 이는 1971년 11월부터 2년간 계획사업으로하고 그 기간이 끝난다음도 남는기금이 있다면 학교로 재단으로 환부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화에 "여름학교" 열다.

이화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한 하기 외국인 학부는 지난 6월 7일 부터 7월 16일까지였는데 그중에는 미국으로부터 남학생들이 참가해서 이채를 띄웠다.

이 하기학부는 국제학생들과 특히 미국에 열주하는 한국대학생들을 위한 아세아 연구에 이바지 하기위해 설립된것이다. 이 학부에 학과목중에는 특히 외국학생들에게 한국말과 역사,문화,일반을 중점으로 가르친다고 하기 한국 학부장 데이빈 서 교수는 말했다. 금년 첫 걸음을 딛 하기학부에는 이화 창설 85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학생을 받아드린 기록적인 사건도 있었다. 처음으로 등록했던 남학생은 "캔사스 대학"의 로날드 크라슨군이며 그는 자기가 이화대학에 등록한 세명의 남학생중 하나라는것을 무척 기뻐하며 자랑하는바라고 했다. 또 "스미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계의 미국인 미미 킴(19)은 이 하기학부에서 한여름을 지내고 그의 소감을 다음과같이 말했다. "한국대학 여학생들은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어요. 그들은 마치 파—티에 나가는것처럼 차리고 오거던요" 라고말했다. 이번학부에 등록했던 여학생들중에 가장 연세가 높았던분은 캐토릭수녀 모리 후랭크린씨였는데 그는 1953년부터 한국에서 캐토릭 선교사로 시무하고있는 분이다.

학부지구 이대 동창회 장학기금의 그후 소식

지난번 이원 제 2호 발간이후 장학 기금을 위하여 발티모어 지부 동창들께서 합계 44불을 보조해 주셨다. 그 명단은 김 정임, 김 정현, 김 혜경, 신 혜숙, 장 경숙, 양 보옥 조 성주, 이 규옥, 홍 경주씨시등임.

기금 모집이후 총합계 860불을 서 온숙 재단이사장께 지난해 4월에 전답하고 은행에 3년간 정기 예금을하면 기금이 약 50만원(한화)된후 1975년 9월학기부터 매년 그 이자로서 학생 몇명을 도울수 있도록 사무 일체를 장학 위원회에 위탁 하였다.

이 기금에 협조해주신 여러 동창들께 서온숙 이사장과 호 재숙 학생처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해 오셨다.

—권경주—

서울서온 편지

윤 영자 英'57

벗아—
여기는 조용한 한국의 겨울밤.
쥐도 새도 잠든 적막속에 바람에 흔들리던 창문소리마저도 고요히잠든 이밤,나는 벗을향해 붓을 들었어.

사랑하는 벗아—
너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이국만리에서 번져나갈줄은 미처 예측치 못하였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믿는 무언속에 영원한 우정임을 자부해왔어.

벗아—
나는 지금 사랑스런 너의 모습을 그리며 그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보고있어. 추억이란 이제와선 소녀시절에갖는 감정의 외로움에서 과거의 아름다움을 되 찾으려는 시간의 낭비같이 느껴지기도하지만 지금나는 벗과더불어의 이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하기만해.

사랑하는 벗—
너와 내가 둘이서 흠뻑사랑인 눈위를밟으며 사색의 세계에서 꿈의 나래를 펼칠때의 그 대학시절이 어제만 같은데...그리고 무한한 이상향을 바라보며 자아속에 몰두할 수 있었던 벅찬희망때문에 너와나의 풋내기 대화는 마냥부풀기만하던 그시절이 불과 몇일전같은데....
이제는 우리서로 30대의고비를넘기므로 안해로서,어머니로서,주부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두어개에 무거운 짐을 가득지고있으니 이것이 인생의 보람인가?

인생의 무한함과 무상한 무량감속에 서무르의어가는 야릇한삶을 맛보며 평범속에서 비약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니?

벗아—
우리서로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를지라도 너와 나의 우정만은 영원한 것임을 신기게 감사드리고있어.
비록 시간적으로,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이 못되는 머나먼곳. 모든 문화수준과 생활환경이 다른 먼곳에 서로떨어져있을지언정....
나의 무한한 자랑은 나를애껴주는 참다운 우정이있고 진심이있고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줄수있는 귀한벗이 있기에 나는 마음속깊이 누구에 지지않게 행복이란놀을 맛보고있어.

그리운벗—
선하고 아름다운 벗의 마음을....
아주 가늘고 나약한 성품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를 내포하고있는벗.
나는 너의 그 성품이 무척 좋아.
너는 내 즐거움이요,기쁨이요,행복임을 잊지말아다오.

우리의 영원한 우정이어—
얼마남지않은 귀한미래를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움의 보람가운데우리서로 후회없는삶을 이어가는 용기를 잃지말자고 이것만은 꼭 약속하고 다짐하고싶어.
보고싶은 나의벗아 밤도 때 깊었어. 벗을향해 달리던 내마음 이제 꿈속에 그리며 고요속에 잠기곺아.

西獨 체류기

김 인식

1971년 10월 15일부터 일개월간 서독 "휘럽쇼스"라는 산촌에 머물면서 남쪽으로 "코프렌츠",북쪽으로 "본" "쾨른" "부뢰탈"시등 모두 라인강변에 위치한 도시를 다녀보았다.

뉴욕 캐네디 공항에서 루프트 한자 항공편으로 "쾨른"비행장에 그곳시간으로 아침 7시반에 내렸다.
여행목적이라면 특별히 독일인의 의식주 생활에대한 관찰이었는데 친척방문을 겸하여 양득을본셈이다.

의생활면에 서

단정한 옷차림들이다. 소 가죽으로된 잠바, 코트, 스커트등이 보통차림이고 바지까지 즐겨 입는것같이 보였으며 요란스런옷은 보이지 않았다. 상점의 기성복들은 안을 바쳐서 꼼꼼히 만들었고 값도 퍽 싸편이었다.

식생활면에서

가사과를 전공한나는 이부문에 제일 호기심이 많았다, 요리책도보고 시장을 많이 돌아보기도했다. 아침식사는 빵과 커피이고 점심을 잘먹는 나라였다. 점심은 숲, 고기, 사라다,삶은 감자, 후식이 있고 점심후엔 조금씩 낮잠을잔다.
구라파에는 생수(물)가 귀한편이어서 식탁에는 물컵이없고 식후는 우유나 레모네이드 또는 코크등을 물대신 마시며 맥주도 많이 마신다. 5대 영양소의 하나인 생명수,물을 못마신다는것은 불행한 일이다.
검고 딱딱한 빵에 버—터를 바르고 햄, 소시지, 도마도 불뇨냐등을 놓아서 칼로 썰어 먹는다. 가정에는 토스터나 커피팔이 없고 상점에서 파는것은 보았다. 아무리 빠도 희고 말랄말랑한 샌드위치빵은 없는것같다. 이들이 천연식품을 취하는것은 영양상 만점이다. 우유나 다른음료는 상자로 사다놓고 냉장고에 넣지도 않는다.
금요일은 대개 생선 계란요리를 먹는다. 사사위그라후트에 쿡트햄을 크게썰어서 지지개를 하는것이다.
청어저린것을 우유에 시게 담근것을 좋아하는것으로 보아 식성이 대체로 신것을 잘먹는것같다.
우리 김치와 냉면이 그들식성에 환영을 받은것은 말할것도없다.

점심초대에는 잡 대접을하나 저녁초대에는 빵 한접시면 된다. 외출했다가도 저녁준비걱정이 없으니 덤빌것도없고 부인들에겐 다행한 일이다.
식모도 점심먹은후엔 집으로 가버린다. 방문시에는 으례 꽃을 사들고 온다. 여러집에 초대받아 갔었는데 다 비슷했다. 케익을 정성드려 구어놓고 기다리는것이 한 큰 대접이며

술은20여종있고 흔히 안주없는술을 마신다. 공업국인 독일은 기계를 팔아서 식품을 각국에서 수입하므로 아끼겨먹고 낭비않는것이 국민성이 된듯하다.

주생활면에서 ——————————

주택은 거의 비슷하다.
현관에서부터 응접실 테이블, 층계, 화분놓는곳,목욕실,침실등에 대리석을 많이 이용한것이 부러웠다.
유리문도 한짝에는 이중으로 되었고 위와 옆으로 여는장치가 되었다.
샤터도 장치가 든든히 되어있고 부엌설비도 7개 갖이 되어었다.
목욕탕에도 온도계가 달려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온도의 물을 쓸수있고 큰 목욕탕과 반목욕탕이 하나더있다.
정원에는 채소밭과 화단이 겸해있다.
방은 스팀으로 난방장치가 되어있다.

특기할만한것은 "스트리엑프"씨가 경영하는 건축회사이다. 현대식 샘플하우스가 많은데 4일이면 완성된다는 믿어지지않는 사실이다. 회사엔 3300여 직공이있고 아푸리카에도 지사가 있다고한다.
그 사장댁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응접실에 자동으로 열고닫는 커틴이 있다.
옥내엔 미화로 21만불 들였다는 풀이 있고 집에서 다당속을 통하여 가도록 만들었으며 싸우나탕, 미용체조도구, 여러개의 탈의실등 큰 풀이었다.
전기로 물결장치를해서 강에서 헤염치는것같이 만들었다. 홈 바에 20여종의 술이 구비되어있고 테레비, 하이파이 시설이되어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기후 ——————————

미국보다 북쪽에 위치하여 조금더 추운편이다. 에어콘도 필요없고 겨울에 수영하는 마이아미가 있는가하면 여름에 스키하는 알프스산이 있는것이 대조적이다.

교통 ——————————

대형차는 못보았고 하이웨이는세길이 큰길이다. 트럭은 밤에만 다니고 토, 일요일은 다니지 못한다.
라인강에 검고긴 화물선이 많이 왕래하는것으로 보아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듯했다.

마침내가 독일에 체류하는동안 자미있는 풍속을 보았는데 11월 1일이 성묘일이고 3일에는 미국 할로우윈데이와 비슷한 야간등불행렬이 있었다. 각색각양의 등불을들고 북을치며 횃불도들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동리를 돌아다닌다. 동리어구마다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은것이 보이는데 행인이 기도할수있는곳이라했다.

아침이면 집집마다 문앞을 쓸고 이국인인 나에게도 인사를건넨다. "굳엔탁" 하는소리가 탁탁하게 들리나 매우 인상적이다.

남녀 학생들이 대개 단정한 머리를 하고있고 체독중 히피같은 장발족은 별로

못보았다. 흑인을 거리에서 볼수없었고 혹 있다면 외국학생일것이라했다. 어린이들중 ㄱ가만 눈동자를 갖고있는 아이들이 퍽 다정스럽게 느끼져졌으며 일반적으로 서독국민에대한 인상은 퍽 친절하고 근면한 백성임을 재 인식하게 된다.

대체로 사회제도가 안정되어있으며 물가변동도 심하지않고 유료환자가 더러 있기는하나 우수한 사회보장제도에다라 대개 병원치료는 무료로되어있다. 노인들은 한달에 두번씩 진찰을 하게 마련이다.

가장인상적인것은 "쾨른"에있는 천여년된 웅장한 대 성당이며 라인강변 비탈에 포도를 심어 식용으로 쓰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파는것도 라인강의 기적에 하나라 할만하다.

인조석을 천연석보다 더 단단히 만들어파는 지혜많고 우수한 민족, 그리고 근면,친절한 그들 국민성은 역시 우리가 본받을만한 점이 아닌가하고 느끼게됨을 어찌할수없었다.

가사과 1회
1933년 졸업

詩

님이여

이 순영

가슴속에 폭풍은 이제서 숨이 자고
한 걸에서 한 걸엔 꽃무지개느렸는데
님이여 그 높은 다리위에서
힘있게 내 손목 끌어올려 주소서

거울처럼 맑게뵈는 잔잔한 호숫가에
황홀한 님의얼굴 뚜렷이 보여주오
가만히 두손으로 덮어가리고
혼자만이 귀하게 간직하리다.

남들이 님의음성 들을것이랜
조용한 이밤에 외 내겐 안들려주
폭풍후엔 밝은햇빛 더 아름답게
온 우주는 님의 빛으로 더 찬란하오리.

—어느 주일밤 나의 기도—

Valentine 파티 後記

이 동 우

"과연 이번 동창회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을까 ?"
"몇명이나 모일것인가 ?"

발렌타인 파티를 앞두고 여러회원들은 한결같이 이 걱정스런생각에 한시도 떠나보지 못했다.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데 기인함은 말할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다같이 미국생활을 하고있으면서 어떤모임을 앞두고는 어지전지 인원을 파악하기가 쉽지않은것이 우리들 형편인것같다.
우선 막연한 인원을 상대로 음식을 마련하기가 쉬운일이 아니었다. "적게 준비하여 당황하느니보다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하는식으로 음식장만을 하기로 하였다.

○ 밴드의 첫 음악소리가 홀에 울려퍼지고 차츰 무도회가 무르익어가면서 조마조마하던 우리들의 마음은 활짝피게되고 모두가 일단 안도의 숨을 쉴수가 있었다. 비교적 많은사람들이 이번 발렌타인 무도회를 즐겨주셨고 그날 하루의 진행이 큰 장애없이 이루어 졌던점은 우리임원들이 퍽 다행스럽게 여기고있다.

○ 파티는 끝났다. 흥분도 가시고 무도회의 여흥도 삼아진 지금이지만 내게는 이번 파티를 에워싸고 인상깊었던 몇가지 일들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다.
이곳에 몇가지 실어보기로 한다.

"샌드위치를 찾아라"

2월 11일 오후 4시에 배달되어야했을 샌드위치가 3시에 이미 현장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배달원이 죠지타운대학 학생회 사무실의 "레이놀드"군에게 맡겼다는것. 그런데 그 "레이놀드"군이 30분후면 퇴근한다는 소식이다. 늦 점심을 먹다말고 부랴부랴 집을챙겨 현장으로 달렸다. 우선 현장 경비원을 붙들고 배달된 샌드위치를 아느냐고 물었다. "샌드위치 ?" 아닌밤중에 홍두깨를 맞난 표정이다.
"학생회 사무실이 어디있오 ?"
본관 지하실에 있다고한다. 본관으로 달렸다.
"레이놀드"씨는 어디있오 ?"
"샌드위치는 어디있오 ?"
사무실을 지키던 학생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한다.
간단히 사유를 설명하자— 토요일 오후 출출한 배를 안고 음악감상하던 학생들 법덕 일어나면서 "샌드위치를 찾아라—" 학생들은 방마다 뒤지고 사교부 C씨는 죠지타운 캠퍼스를 동분서주하였으나 샌드위치는 행방불명이다. 파티시간은 닥아오고 십토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파티 30분전 쯤 되었을까 ?
7 휘트의 어느 멀쑥한 청년이 나타나 "혹시 샌드위치를 찾고 계시나요 ?"

파티를 일주일쯤 앞둔 어느날이었다. 달리던 자동차안에서 올해 네살자리 어린 놈이 하는말이 걸작이다.
"마—미. 우리는 이제 새집으로 이사가야만 돼 "한다. 무슨 뜻인지 알수없었던 나는 "이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왜 또 이사를 해야하니 ?" 하고 물었다.
그녀석 말이 "마미 우리집 부엌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새집으로 가야만 돼."하는 것이었다. 신통한 녀석이라 생각하면서 한편 엉뚱한 그 어린 마음에 흥미가 갔다. "도대체 부엌 바닥을 누가 더럽히냐 ?" 고 넌지시 물었다. 어린놈은 벌컥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말이 "유 노우 와이 ?마미가 부엌 바닥은 안닦고 맨날 전화만 걸고 있으니가 그렇잖아 ?"
"....."

이번 모임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여주신 여러 회원들, 특히 대사관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아울러 김밥 마시기에, 만두빚으시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형님들, 그리고 여러 아우님들께도 오래 오래 뜨거운 감사를 안고 있으면서 다시한번 이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립니다.

이화.연세 발렌타인 파—티
회계보고

입금—	이화	908.00	
	연세	261.00	계1,169
	음료 판매대		441
			총수입1,610
지출 —		780.32	
수입 —		829.68	

이화 십년 발전 후원회보조를위한 우리의 활동보고

지난해 어머니날 동창들의 성의와 솜씨를 모아 음식 바자회를 열고 그날 들어온 이익금 247불중 잔액 120불을 서 은숙 이사장께 지난6월에 전달하고 127불은 화부지구 동창회 자금으로 보탰다.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신 지난해 임원들과 그 밖의 동창들께 마음깊이 감사하며 본교 재단측에서도 우리의 성의를 대견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 권 정주—

" 이원" 을위한 찬조금
(존칭략)

김 순학	20.00
이 순영	20.00
임 명순	20.00
권 규홍(고문)	20.00
채 의숙	20.00
최 임선	20.00
최 정선	10.00

기 행 문

眞理大의 香氣 天地에게서

이화 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이사
십년 발전계획 화두지구 이사
오 창 희

어제가 입자년 정월 초하루였으니 기행문을 쓰기에 좀 늦은감이 있으나 작년 신해년은 이화가 85주년이란 긴 세월을 걸어온 기념잔치를 성대히 거행했던해인만큼 두고 두고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경험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싶고 이화가 100주년 기념식을 갖일때는 여러분의 업이 쉬인 이화, 우리 사회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결과를 보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보낸다.

이대 총장 김 옥길 박사로부터 십인이 이 85주년 기념일에 뵈창을 밥게 되었으니 내외가 같이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아직 십인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첫째는 먼 여행을 주저하였고 둘째는 한일도 별로 없이 주시려는 영광을 피하려 했으나 앞으로 이화의 영구한 발전계획에 적은 힘이나마 기우려야 한다는 호령인줄알고 이 초청에 응키로 작정하고 김 총장에게 "응하겠읍니다"하는 회답을 보냈다.

출발일은 5월 22일 오후 3시, 팬.암.기편으로 로스 앤젤스, 하와이, 동경을 경유, 서울을 향해 나르기 시작했다. 서울에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동경을 아침에 떠날때는 안개가 끼고 흐린 날씨여서 좀 염려했으나 동해를건너 조국강산의 상공을 나르는순간 보이는 산수마다 갠 날씨는 한없이 아름답고 이땅이 내것이로구나 생각할때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이 나의 눈을 고요히 감게했다. 사상적으로 분리된 이 민족이 어떻게하면 하나가 될수있을가?하고 생각해 보았다.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 오가고하는동안 비행귀 바퀴가 기체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벌써 바퀴는 땅에 닿았고 엔진소리가 높파지며 기체가 천천히 돌면서 홈에서 꽤 먼 거리에 정지하는것이다. 스튜어데스의 안내로 우리 두 내외가 제일먼저 문을 나서니 누군지는 몰라도 많은 동포들이 벌서 손수건들을 흔들며 오는손님들을 환영하는 표정에는 나를 맞아주는 이들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즐거운 마음에 곧 손에 들었던 가방이며 카메라등을 놓고 모자를 벗어 휘휘 휘둘렀다. "오랫만에 다시 고향에

찾아왔읍니다"라는 뜻의 답례를 보냈다.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녀도 맛볼수없는 흡족한 온정의 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든든치못한 심인을 붙잡고 홈을 향해 가까이왔을때에는 알아볼수있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우리들 눈에 띄었다. 먼저 어떤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권을 제게 주시고 먼저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했다. 어리둥절한중에 선듯 여권과 집표를 내어주고 우리들은 거침없이 밖으로 나왔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원을 보내어 오랫만에 고국을 찾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편의와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공항엔 김 옥길 총장님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총장 박 대선 박사, 여러 선교사들 또 정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선배, 친척, 친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한참동안 인사를 주고 받고하기에 분주했고 넘치는 환영에 감격된 가슴을 어찌할줄 몰랐다. "다시 또 뵙겠읍니다"의 약속으로 대강 인사를 끝내고 김총장의 안내로 차는 시내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차중에서 김총장 말씀이 "두분은 김활란 박사님이 사시던 집에서 유하시게 되겠읍니다."하고 일러 주셨다. 이집은 이화에서 "새집"이라 부르는데 학교에서 외국으로부터 이화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열어놓은 집으로 아래층에는 객실, 식당, 주방이 있고 이층에는 넓은 회의실에 40여개의 교의가 둘러놓였고 뒤에는 침실 셋이 있어 한 방은 고 김 활란 박사님이 쓰시던 모양 그대로 보료와 문갑 경대 심지어 방에서 신으시던 방신까지 그대로 놓여있어 잠시 어디 외출하신감을 주었다.

유하는 손님들을 식사, 거실정돈, 일체를 오랫동안 고 김 박사를 모시고 일하던 문씨 아주머니가 계속 수고하고있고 총장실에서 일보시는 직원 한분이 학교시간 외에는 여기와서 찾아오시는 손님, 전화를 다—받아주고 연락사무를 보살펴주어 그의 신세가 컸던것은 고맙게 여기는 동시에 우리 두 내외의 머리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지극히 적은 일까지도 다 보살펴 주시던것을 여기에 다 형언할수없고 다만 이화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것 호흡했고 잊을수 없는 인상들을 마음에 담북 안겨주었다.

도착 즉시 김총장께서 있을동안의 스케줄을 다— 타자해서 주셨으며 떠날때까지의 취할 행동을 밝혀 주셨다. 그 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5월 26일 (수) 오전 11시 10분 도착
오후 7시 연세 대학교 총장 초대연.
5월 27일 (목) 오후 7시 워커 힐 에서 서울 시장 초대연.

5월 28일 (금) 오후 4시 여성단체 협의회 초청 티—파티.
오후 6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숙종박사 초대연.
5월 29일 (토) 오전 10시 교육대학 퍼펫 쇼.
11시 이화 중 고등학교 표창식 출석.
12시 우석 의과대학 표창식 출석.
오후 6시 총장 공관 동창회 디너 파티.
7시반 대강당 동창회 음악회.
5월 30일 (일) 오전 11시 이대 교회 예배 출석.
오후 12시반 금란동산 성묘.
6시반 국무총리 초대연.
5월 31일 (월) 오전 8시 이사장 서은숙 박사 초대연.
10시 85주년 기념식
오후 12시반 총장공관에서 점심 초대. 가든파티.
6시반 김 용우 선생 초대연.
6월1,2일(화,수) 학교 대절 버스로 부산행.
6월 3일 (목) 12시반 전 국무총리 송요찬, 정 일권, 전 국방 장관 손 원일 제씨의 초대연.
오후 6시반 감리교 선교사단 초대연.
6월 4일 (금) 오후 6시반 김 옥길 총장댁 초대연.
6월 5일 (토) 오전 9시 오 재경 이사장 안내로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서회 내방.
오후6시반 김포공항 출발.

이상과같이 꽉짜인 순서를따라 10일간 분주히 지나는동안 특별히 5월 30일 주일에는 이화 대강당에서 몽이는 예배에 출석한후 금란동산으로 고 김활란 박사의 묘지를 성묘케되어 미아리쪽으로 나갔다. 작고하신후 처음 인사의 길이었다. 더듬어 올라가 1969년 12월 4일 실인이 뇌출혈로 코마에 있을때 나는 어찌할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자정이되어 왼일인지 모르고 뉴욕으로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이 장거리 전화는 다른이에게가 아니고 곧 고 김활란 박사님께였다. 박사님 조카가 주무시는 박사님을 깨심에 틀림없었다. 전선을 타고 담화는 오갔다. 그 음성 귀에 쟁쟁할수밖에. "인간으로서의 있는힘을 다 해야지"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후 족하를 통해서 그날밤 간곡한 기도를 실인을 위해서 올려주신것을 알았고 며칠후 장거리 전화로 또다시병문안을 주시는 전화가 왔을때는 추운 겨울을 한국가서 쉬시고 다시 3,4월쯤맞나기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는 과로 끝에 2월 10일 작고하신것이다. 분홍 월계꽃 한아름을 안고 성묘했을때는 다시 아무말도없이 그 꽃

을 밟으셨다. 동창직원들이 외국서간 손님들과함께 무덤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고 나는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저 높은곳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드리고 어머님 옆에 가장 친애하는 친구 둘을 더 보시고 누어 계시는 김 박사님에게 절을 드리고 내려왔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 5월 31일 월요일은 제일큰 행사가 벌어졌던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손님들은 학교를 덮었다. 벌써 5월말이라 수목들이 제법 울창하고 날씨가 좀 흐린편이었다. "김 박사님 비가오면 어쩌지요 ?"하는 나의 물음에 그는 서슴치 않고 "이곳 역사에 이 날은 비가 오는법이 없읍니다."했다. 정작 종일토록 날씨가 이러한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날씨였다. 학교 운동장을 둘러싸고 인산 인해를 이룬 광경을 보아 적어도 이날 서울장안은 퍽이나 조용했을 것이였다. 체육관 운동장을 향한 난간위에 총장, 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인 후란체스카 여사들을 비롯하여 30여명의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열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십년동안 하루같이 근속하신 열다섯분의 교수님들 또 그 뒤에 전교 교수, 직원과 모모한 손님들이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교의에 꼭꼭 자리를 채웠다. 바로 운동장 건너편 언덕에는 5월의 여왕좌와 홈컴밍 여왕좌가 가즈런히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왕좌까지 올라가는길과 층계에는 흰선두른 홍포를 깔아 더욱 기념식장을 아름답게 하였다. 간단한 창립 85주년 기념식이 시작 되자 명예 박사학위(한분)수여식과 공로자 표창식이 있었고 총장 김박사 자신이 공로메달을 하나씩 하나씩 목에 걸어주시고 표창장을드려 굳게 악수를 나누는 광경은 결코 지나간 날의 공로를 표창함만이 아니고 앞날의 이화를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10년동안 수고한 교직원의 표창이 끝나자 8000여명의 교직원들은물론 전 학생들, 졸업생까지 총 기립하여 부르는 교가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그대로 이화동산이 더르렁, 더르렁 뒷 봉원사가있는 안산의 높은 봉우리를 치고 그 메아리가 다시 귀에 쟁쟁하도록 들려왔다. 식이 끝나자 이화의 대 합창단이 해군 군악대에마추어 부르는 "개선의 노래"가 또다시 우렁차게 들려오자 먼저 5월 여왕의 시녀들이 분홍 치마 저고리로 곱게 단장을하고 싱싱이 밭을 마주어 봄바람에 긴 치마를 출렁이면서 홍포위를 나란히 걸어 여왕좌 계단 좌우에 대립하고 이어서 5월여왕이 대관식장에 이를때까지 손이 깨저라하고 치는 박수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장내를 진동하는 것이었다. 계속하여 홈 커밍 여왕 시녀들이 다홍치마 청 저고리로 단장을 하고 걸어나올때 그 청아한 고전 모습 5월 여왕 못지않게 장내를 아름답게 했고 대관식이 끝나자 잔치는 먼저 민속노리로 벌어져 청과 홍의 두편으로 나뉘인 "차전 놀이"가 시작 되었다. 청홍이 서로 돌격전을 몇번이나 거듭하더니 결국 홍군 차전이 청군 차전을 엎눌러 홍군이 승리하는순간 차전을 메고 싸우던 홍군 전사들이 차전을 몇번이나 하늘로 휘쳐도 차전장군 교묘히 차전을 붙들고 서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술은 과연 차전장갑은 기분을 주었고 차전을 메고 싸우든 전사들은 신었던 짚신을 벗어 하늘로 올려치니 또다시 관중은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었다.

운동장이 규모있게 정돈되자 흰 샤쓰에 짧은 남 팬츠를 입은 체육대학 체육과 학생들의 회전 체조는 계속 관중들의 시선을 몰았고 다음엔 무용과 학생들의 농악이 벌어져 초록 저고리 다홍에 치마를 입고 허리를 질끈 동인데다 장구를 메고 나오는 모습과 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농사지지 천하지 대본"이란 기를 들고 나오는 남장한 모습은 그럴게도 잘 어울릴수가 없었다.

농악이 끝나자 입학년 전원이 나와 "이화 체조"를 했는데 85주년을 상징하는 "85"를 그려내어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화는 빛나리"라는 전교생 합창이 끝나자 먼저 "홈 커밍" 여왕이, 그 뒤를이어 5월의 여왕이 각각 퇴장했는데 벌떼처럼 덤벼드는 사진사들이 한데 좀 너무한다는 감을 주었다. 그도 이기회를 놓지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덤벼드는 것이니 그도 그럴법하게 생각 되었다.

그러나 85주년의 긴 역사의 잔치가 이것으로서 끝날수는 없었던 것이다. 캠퍼스 안에서는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여기 저기 이화 잔치가 벌어져 "공개 방송" "꽃의 향연" "커플 게임" "돌아서 맛있게" "무도회에의 초대" "불 꽃들의 행진" 등으로 이 밤을 새웠다.

잠시 특별 공로 포창을 받으신분들의 성명과 그 분야를 기록해두고 싶다.

강 유두 씨 (사회사업)	김 동준 씨 (여성교육)	김 메불 씨 (여성교육)
김 순영 씨 (여성교육)	김 영원 씨 (사회사업)	박 순천 씨 (여성운동)
박 현숙 씨 (여성운동)	박 종홍 씨 (교 육)	박 화성 씨 (여성교육)
송 인애 씨 (간호교육)	옥 혜숙 씨 (문 화)	다니엘 스트루더스 씨
(선 교 사 업)	오 주경 씨 (기독교육)	이 신덕 씨 (여성교육)
이 병두 씨 (국제친선)	이 동근 씨 (교육일반)	이 병창 씨 (국제친선)
이 희승 씨 (교 육)	임 명순 씨 (의료사업)	임 영신 씨 (교 육)
윤 성열 씨 (선교사업)	채 필근 씨 (기독교육)	최 은혜 씨 (언 론)
최 승란 씨 (교 육)	최 활란 씨 (여성교육)	추 애경 씨 (국제친선)
베티 희문씨 (국제친선)	전 수진 씨 (여성교육)	최 금봉 씨 (의료사업)

다음 6월 1일(화)과 2일(수)은 특별히 외국으로부터 멀리 기념식에 참석키위해 오신 손님들을 위하여 한국을 보이는 날로 정하고 학교당국이 마련한 버스로 서울서 대구 울산 등때 해운대 부산 등지를 보고오는 먼 여행이었다. 아침 9시 본관앞을 떠나 버스는 서울—부산 고속도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1898년 바로 지금부터 74년전 일본이 서울—부산 철도를 개설하는 권리를 맡아 시설한후 해방이 되도록 36년간을 한국의 피를 빨아먹기에 정신이 빠져 해방이 된때까지 소위 서울—부산 일등도로가 포장하나없이 흙길 그대로였는데 박 정권 8년

이 못되어 서울—부산 고속도로가 세계은행의 협조를 받지도 못하고 재정적 곤란을 겪어가며 성공한 이길을 내자신이 달릴때 왜놈은 지금까지도 두번이나 한국을다녀와 이 고속도로 개통의 불필요성을 쓴 글을 읽었는데 나는 그 목적여하를 막론하고 상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중 대구에 잠시 머무렀을때 현 제일군 사령관이신 채 명신 장군 내외분이 안내 관저에 버스가 섰을때 군악대의 이화교가 연주로 일행을 환영해주었고 이화를 졸업하신 장군 부인께서 현관밖에까지 나와 친절히 우리를 안내해주셨고 맛있는 점심으로 접대해주셨다. 현재 담당하고있는 대구 이남의 넓은 지역과 삼면해안의 국토방위를 담당하고 눈부시게 활약하시는 장군의 보고를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으며 장군에게 관한 일화를 듣고 더욱 경모의 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야기는 월남전쟁으로 돌아 장군은 국군을 인솔하고 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는 소식을 자타가 보도를 통하여 공인하는바이나 그에게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월남에서 귀국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때 그의 월남공적을 치하키위해 박 대통령께서 그의 원하는바를 물었다한다. 채 장군께서는 주저없이 교회를 하나 지어주십시요 했다. 이것이 바로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 높이세운 아담한 교회가 국군들을 위해 서있었다.
답화중 여러번 굳은 신앙에서 빛나는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의 인격에 많은 감동을 받았을뿐 아니라 마음 든든하였다. 관저를 일행이 떠날때는 지질차를 명하여 일행을 울산 공업지대까지 안내해주시어 더욱 예우의 감을 느끼겼다.

오후 해가 서산에 뉘엿 뉘엿 넘는때쯤 우리는 울산 공업지대에있는 동양제일의 규모인 정유공장을 견학하고 국내 급유는 물론 멀리 해외 수출까지 하고있는데 미공군에서 사용되는 급유까지도 여기서 수출이 되고있다한다. 견학이 끝난후에는 연세 대학교 출신인 사장, 이화 출신인 그 부인께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우리들을 클럽하우스로 청하고 맛좋은 만찬회를 베풀어주셨고 많은 이화출신들까지 합창을 들려주는 커피작석을 섭섭히 작별하게 되었다. 버스는 동래를 거쳐 해운대 극동호텔 앞에 닿았다. 때는 벌써 어두운 밤이되어 해안선에 철벅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야성을 이룬 전등불만이 고요한 그밤을 비추이고 있었다. "여기가 해운대 입니다" 할때 내가 어려서 이 땅에서 자랄때는 한국사람은 제땅이면서도 자유로 이 아름다운 해변을 즐길수 없었고 소위 일본 총독 별장지로 택정되어 내땅에서 저희들 멋대로 굴던 자취는 하나도 없고 우리 겨레가 마음것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함께 즐기는것을 볼때 나는 또다시 마음길이 피도 뼈도 살도 저리게 쓰라렸던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씩 회상하면서 신께서 할남의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하는 은은한 기도를 올렸다.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하고 아름다운 해안 사장을 몇번이나 오락 가락하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 부산 시내로 향했다. 부산에선 "금성사"란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테레비존,냉장고 기타 전기 기구를 제작하는 회사를 견학하고 우리 일행은 다시 서울을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 연변에 정연한 농장, 준락 산야에 수림은 어느나라에도 부끄러울것이 없었고 미국서 처음으로온 손님들도 계속 입을 다물줄 모르고 한국을

칭한하는 것이었다. 도중에 대관령 긴 굴을 지나기전 우리는 연변 식당에서 점심을 하기도하고 다 내렸다. 음식도 한국식, 외국식 무엇이나 청하는대로 나오고 제복을 단정히 입은 작은 처녀들이 척척 손님들을 규모있게 접대하는양은 놀라지 않는이가 없었다. 이틀동안 서울서 해운대로, 또다시 서울까지 버스로 여행하는동안 버스 안은 웃음으로 채워졌고 먹을것, 마실것까지 다 찬찬히 준비하여 함께 동행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특별히 바쁘신중에 동행해주신 김 총장과 상무이사 김 영의 박사와 학교직원 두분께 또다시 감사하는 바이다.

20여년을 해외에서 지나는동안 고국은 많이 변하고 진보했고 또 전진하는중에 있다. 가끔 우리는 오래 해외에서 살면서 국내 사정에 어두워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듣는것에 관심을두고 한국은 내나라가 아닌듯 가혹한 비판을하고 듣는대가 적지않았다. 양단된 나라가 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당연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잘살고 할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잘살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도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근본문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흔히 삼일정신 운운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태극기를 들고 일인의 부장앞에 굴하지 않은것도 장하지만 방방곡곡에 있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사 람이나 할것없이 십지어 왜놈의 앞잡이까지 즉 형사, 순사, 헌병도 다— 한편이되어 3월 1일 오후 1시 집회장소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때까지 우리민족이 단합하여 우리민족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했던 것이다. 이런 희생과 단결없이는 독자적인 통일도 어렵고 자칫하면 자손만대에 여한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생각된다.
최근의 세계정세가 급격히 변천하고 있는데 이화의 앞날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학교당국은 물론 동창들의 눈부신 활동은 여간한것이 아니라고 엿보였다. 한사람으로 시작된 이화가 85년을 자라나는동안에 2만여명에 달하는 동창기관으로되어 학과별, 직장별, 도별등 각방으로 동창은 물론 친지 일반 사회인과 단체등을 상대로 이화 10년 발전계획 모금운동을 추진 시키고 있는것을 보았다. 대체로는 그렇게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여성기관이 또 무슨 모금운동을 하느냐 하는 평도 들을때가 있으나 이 운동은 결코 이화를 상아탑적 존재위에 올려놓으려는 생각에서가아니라 또는 과거와 같이 교양인이나 상식인을 길러내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현하 사회문제와 직결되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이화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것을 추궁할때 이제부터는 학문을 제대로하는 사람을 더 많이 길러내어 개인적인 자기 본위보다 국가와 사회에 또는 세계에 공헌케 하려는것이 즉 학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따져볼때에 이화출신이 사회각분야에서 이바지할수 있도록 만들자는것이 즉 이 10년발전 계획인 것이다.

1972년 2월 10일로서 고 김활란 박사의 제 2주기를 마지했다. 그는 선전지명

가지고 이화를 걸고나왔고 또 알보았기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것이다. 이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인것을 불문하고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이화를 협조하여 올바른 궤도위에 올려놓도록 노력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다너은 일편을 여기에 심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고싶은 소식은 사단법인이던 이화대학 국제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수있게 되었고 또 이 선교부안에 사무실을 두고 오랫동안 이화를 협조해오던 이화 모조페이팅 밴드가 국제재단과 완전히 합류하는데 성공을 보았고 또 정식으로 법적수속이 끝나 한 기관으로 일하게된 기쁜소식이 뉴욕 본부로부터 각 이사들에게 보고 되었다. 또 하나의 즐거운 소식은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서 이화대학병원에 암 엑스광선 치료기 한대의 기증을 받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입허가만 끝나면 뉴욕 국제재단본부에서 곧 한국으로 발송케될 준비가 되어있다한다. 국내에서의 암 치료의 서광이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구시든지 이화 10년 발전계획에 협조해 주실분은 다소를 막론하고 접수에는 꼭 Payable to ;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en's University, Inc.
라고 지명해주시고 이일은 면세허가가 되었으므로 세무청에 보고하실때 감하실수 있게 되었읍니다.

TEDE LINGO Real Estate

299-6804

동창 여러분의 가옥 매매에관한 일체의 Service를

성심껏 제공해드립니다

이 국 희 올림

동창들 소식

이 순자— 부군ㄱ께서 태권도 지관을 럭빔에 내다.

홍 경주— "발티모어"지역에서 "조호막"으로 이사.

박 옥영— "뉴욕"에서 "배데스다"로 이사.

이 국히— "리얼 에스테이트"를시작.

김 정자— 지난 3월 구라파 수개국 순방 여행하고 돌아옴.

홍 춘혜—첫 ㄷ다님 보다(지난해)

정 용선— 지난여름 구라파 여행.

김 순함— 손자들을 만나보시는 재미에 매를 뉴욕으로 올라가시는 모양.

최 임선— 부군이신 박관빈 목사님ㄱ께서 부활절을 기해 버지니아에 새로 한인교회를 설립,목회시작하심.

최 의숙— 작년 5월 20일 토요일에 이화 동창들을 자택에초대.

김 금녀— 고문이신 전규홍박사 부인으로 근일에는 학교에서 어학 가르치시기에 분주.

권 경주— 지난 7월 파리에서열린 제10차 국제 병원성 진균학회에 연구논문 발표차 참석.

김 인식— 지난가을 서독에 계신 친척방문차 여행.

박 원정— 지난 7월 모스코에서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하신 부군을 동반 구라파 각지 여행.

박 선경— 지난 6월 조호막으로 이사. 지난9—11월 모국방문.

홍 귀진— 지난가을 모국방문.

이 동우— 지난여름 서울 방문.

이 수전— 지난 가을 모국 방문.

조 인숙— 부군ㄱ께서 한국어 방송을 후원. 4월중순 세계은행 조사단 일원으로 한국에 일개월간 출장.

안 순분— 지난 가을 첫ㄷ답보다(수미) 새 주택으로 이사.

한 찬심— 우드 부리지 새집에 이사.

박 정심— 뉴욕에서 사시다가 워싱톤 지역으로 이사 오시다.

임 명순—부군 오 목사님과함ㄱ께모교 8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이화 10년 발전계획 공로수상자로 총장의 초청으로 .

허 숙자— 작년 7월 첫 아드님 보시고 삼녀 일남.

한 혜경— 지난여름 넷ㅈ재ㄷ다님 선경양 화촉 밝히다.

박 인덕— 이사장직을 맡고계신 "인덕공예 전문학교" 개교. 개교식 참석차 일시 귀국하시고 워싱톤으 돌아오시다.

김 성혜— 지난 3월 김 형석 박사 부부(양친)의 방문을 맞으시다.

(동창들 소식 계속)

조 영숙— 지난 12월 첫아들 보다.

조 인자— 지난 11월 토우엘로 이사.

허 임자— 지난 12월 첫딸 "은영"보다. 부군께서 "서울 파데스"를 맡아 경영하시는 한편 "뉴—포티아 식품" 수입,도매, 우편주문 회사를설립 분망함.

김 정현— "베데스다"에 미용 사살롱을 개업하다. 주소는 아래같음.
8005 Norfolk Ave.
Bethesda, Md. 656-4567

정 춘자— 지난 2월 아들 보다.

유 연담— 새로 집을사고 이사하다.
3216 Goldmine Rd.
Brookville,Md. 20729
774-9659

타지방 동창들 소식

신 형숙— 유 형기 감독 부인으로 한국에선 가정부인으로만 계시더니 타성에서 사업도 상당히 잘 하시는 모양, 아직도 두분께서 젊어서 곱던모습 그대로 간직하신듯. 앞으로 화부에 방문 예정이시라고한다.

조 은경— 최 황 박사 부인으로 이화전문시절 음악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일본에 사시면서 그림공부를 하셨는데 크게 발전을 보아 지금 상항에서 전람회까지 열어 큰 성과 보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 옛날 테니스 챔피온쉽까지 잦었던분.

장 춘복— 옛날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던 고 이 종선씨 부인으로 지타성에 오셔서 화부 동창들을 맞나기위해 잠시 화부를 방문하셨는데 이분역시 일본에서 20여년 사시며 꽃만들기 공부를하여 이번에 이곳 동창들께 아름다운 꽃을 한송이씩 만들어 선사하고 가셨다.

김 매리— 전 이대 음악과장을 역임하신분으로 지금 디트로이트시에서 상당한 직장의 지위를 찾이하시고 그곳 한인사회의 주인노릇을 하시며 일년에 몇번씩 4—50여명의 학생들을 초대하여 젊은사람들의 제일 가까운 친구로 지나신다는 자랑할만한 소식. 작년에 화부 동창들 방문차 다녀가시다.

심 양순— 전 국방장관으로 계시던 김 용우씨 부인으로 이화전문시절 "매이 퀸"에 선발되셨던분. 이번 화부에있는 아드님, 따님 (조 경희 동창)방문차 오셔서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대 가족과함께 지나시며 일년간이나 계시다가 귀국하시다.